

# 인체의 추상형/사실형 개념에 따른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연구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김 윤 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김 민 자

## 目 次

I. 서 론	3. 한국적 현대 패션
II. 인체미와 복식미	4.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에 대한 비교 고찰
1. 인체에 대한 미의식	
2. 복식에 대한 미의식	IV. 결 론
III.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	참고문헌
1. 전통적 한복	ABSTRACT
2. 현대적 한복	

## I. 서 론

19세기 말 이후 진행된 한국의 현대화는 오늘날 한국인의 생활을 전세계 현대인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서양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복식이다. 그러나, 서양적인 것으로만 보이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서양 문화의 현대 복식에서 그 나름대로의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비서양 문화의 전통적 미의식이 서양의 현대성과의 결합 과정을 거쳐 각기 독특한 조형으로 표출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복식의 기능성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복식의 조형은 인체와의 관계에서 고려될 수 밖에 없으며, 오늘날의 여러 국가, 민족 복식의 형태의 차이 역시 인체의 형태와 더불어 인체에 대한 미의식의 차이

에서 오는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특히 기술이나 사회 구조적인 제약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현대에서 복식의 다양성은 무엇보다도 개인이나 집단의 미의식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현대 복식 문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미의식의 개념이 제시된다고 할 수 있으나 미의식을 통한 한국 현대 복식 연구는 드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세기 말의 현 시점에서 전통성 뿐만 아니라 전통성과 현대성의 혼합으로 인한 '또 다른 우리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다른 우리 옷', 즉, 한국 현대 복식 가운데 전통성과 현대성 요소의 혼합이 특히 잘 나타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현대 한국적 복식<sup>1)</sup>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그것을 통하여 표출될 한국인의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현대 한국

\* 이 논문은 97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현대 시기에 한국에서 한국인들에 의해 입혀지는 복식 가운데 특히 '한국적'이라고 인식되는 복식이다.

적 복식은, 일반적으로 지각되는 분류, 즉 전통적 한복<sup>2)</sup>, 현대적 한복<sup>3)</sup>, 한국적 현대 패션<sup>4)</sup>으로 다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연구의 개념들은 <표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복식에 대한 미의식을 추론하기 위하여, 인체의 형식과 미적 가치는 어떻게 전제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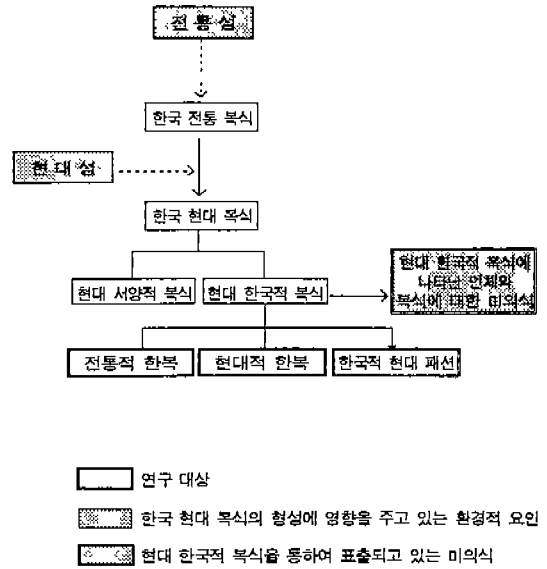
둘째, 복식에 대한 미의식을 추론하기 위하여, 복식의 형식과 미적 가치는 어떻게 전제될 수 있는가?

셋째, 현대 한국적 복식 즉, 전통적 한복, 현대적 한복, 한국적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복식에 대한 미의식의 개념을 복식미와 인체미의 시각에서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정리하고 이를 현대 한국적 복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적용하였다. 현대 한국적 복식 연구의 범위는 시기상 1980년대 초부터 최근 1997년까지로 하였으며, 각종 월간지, 카탈로그나 작품집에 실린 국내 디자이너들의 작품들 중에서 한국적 복식이라고 인지되는 사진과 언어적 설명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의 선택시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전체 한국 현대 복식을 전통적 한복, 현대적 한복, 한국적 현대 패션으로 분류하였다.

## II. 인체미와 복식미

복식에 대한 미의식은 인체라는 자연미를 지닌 대상으로부터 출발되므로, 형식면에서 볼 때 복식의 조형은 인체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질



<표 1> 연구의 개념들

수 밖에 없으며, 내용면에서도 복식은 한 문화, 시대의 인체에 대한 의식을 표출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복식에 대한 미의식 연구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인체미와 복식미에 대하여 형식과 미적 가치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1. 인체에 대한 미의식

#### 1) 인체의 형식

인체의 형태가 아닌 형식이라고 함은 인체의 자연적 형태가 복식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임의의 형태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복식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인체의 형태는 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형이 이루어진 형태"<sup>5)</sup>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 한국 고유의 전통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현대 한국적 복식으로서 일상적으로 '한복'이라고 부르는 복식을 칭한다.  
 3) 한국 전통 복식에 현대적 요소가 더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현대 한국적 복식으로서 보통 '개량 한복', '실용 한복', 또는 '생활 한복'이라고 부르는 복식을 포함한다.  
 4) 서양 현대 복식에 전통적 요소가 더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현대 한국적 복식으로서 보통 한국에서 서양 패션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에 의해 발표되는 복식을 칭한다.  
 5) 조요한, 『예술철학』 (서울:경문사, 1995), p.68.

복식에서의 인체의 물리적 부위의 은폐와 노출을 분석함으로써 다시 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체의 형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복식에서 은폐 또는 노출될 수 있는 인체의 물리적 부위는 머리, 목, 가슴, 허리, 배, 엉덩이, 팔, 다리, 손, 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풍만한 가슴과 풍만한 엉덩이 그리고 가는 허리를 지닌 여성의 인체에 대한 찬양은 어떤 이상적 여성상보다도 널리, 빈번하게 나타났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sup>6)</sup> 가슴과 허리, 엉덩이는 남녀 간의 성차가 뚜렷한 부위로서, 복식에 있어서,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다. 한편, 가슴은 모성(母性)을 연상하게 하여 주는 부위이며, 허리와 엉덩이는 출산 여부를 가늠케하여 주는 부위이기도 하여, 여성의 가슴과 허리, 엉덩이는 어머니로서의 여성,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성/여성을 문화/자연으로 구분<sup>7)</sup> 하는 것은,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인간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 때 가슴과 엉덩이는 여성이 출산 능력을 가진, 문화보다는 자연에 보다 가까운 열등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위가 되어 왔다. 팔은 인체의 부위 중 가동성이 매우 큰 부위이며 인간 노동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복식의 사회성과 직결되며,<sup>8)</sup> 다리 역시 활동성과 관련 있는 부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인체의 각 부위들이 복식에서 어떻게 은폐, 또는 노출되는가 하는 것은 우선 인체의 각 부위들에 대한 인지 여부, 더 나아가 인체 각 부위들의 상이한 형태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

라 달라질 것이다. 이는 인체에 대한 추상적, 또는 사실적 인지를 일컫는 것이며, 복식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 인체에 대한 인지를 추상형과 사실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추상과 사실의 개념은 현대 예술의 추상주의와 사실주의의 개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예술에 있어서 추상주의는 재현과 반대의 의미로서, 예술품의 표현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쓰이며<sup>9)</sup> 사실주의는 대개 자연의 정확한 묘사를 일컫는다.<sup>10)</sup> 그러므로 인체에 대한 추상적 인지는 인체의 재현 보다는 만드는 이의 미의식이 크게 작용하는 의복제작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체에 대한 사실적 인지는 결국 인체의 각 물리적 부위를 파악하여 의복 제작시에는 인체의 형태를 재현하는 방향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인체의 형식을 노출된 인체의 물리적 부위와 인체에 대한 추상적, 사실적 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인체의 미적 가치

서양 철학의 주류에서 육체는 정신을 의미하는 다양한 개념들, 즉, 영혼, 마음, 이성 등의 어느 것과도 동가적으로 대립한다.<sup>11)</sup> 이와 같은 개념적 대립은 오랜 세월 동안 서양 문화에서 논쟁이 되어 왔던 이성과 욕망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반영하는 것으로,<sup>12)</sup> 동물에게는 결여된 인간의 도덕적, 합리적 영혼과 동물과 같은 비합리적 욕망의 인체는 Descartes에 이르러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확연히 구별되었다.<sup>13)</sup> 즉, 영혼, 마음, 이성

6) Madge Garland, *The Changing Form of Fashion* (N. Y.: Praeger Publishers, Inc., 1970), p.5.

7) Gill Saunders, *The Nude* (Cambridge: Harper & Row, Publishers, 1989), p.91.

8) 장문호, 『복식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5), p.94.

9) Robert Atkins, *Art Spoke* (N.Y.: Abbeville Press, 1993), p.43.

10) Atkins, 앞의 책, p.183.

11) 유초하, "동서의 철학적 전통에서 본 육체-추회와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문화과학, 1993년 9월, 4호, (서울: 문화과학사), p.116.

12) Bryan S. Turner, *The Body and Society* (Oxford: Basil Blackwell, 1984), p.157.

13) C.A. van Peursen, 『몸, 영혼, 정신』, 손봉호, 강영안(역)(서울: 서광사, 1985), p.27.

정신이 되는 반면, 육체는 욕망을 제공하는 물질이 되는 것이다.<sup>14)</sup>

그러나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성과 욕망, 정신과 물질 등에 대응될 만한 개념이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철학적 체계 간에 대응 개념이 없다는 것은 이론 내용 수준 이전에 방법론이나 발상법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sup>15)</sup> Descartes의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비될 만한 동양의 개념을 들자면 주희 철학의 '이(理)와 기(氣)'가 될 것이다. '이'는 사물의 본성, 내지 본질이며, '기'는 끝 내지 형체이다. 일체의 사물은 형체와 본성의 결합으로서만 그 존재가 성립된다.<sup>17)</sup> 한편 '몸'과 '마음'을 지칭하는 성리학적 용어는 '이'와 '기'가 아니라 '신(身)'과 '심(心)'인데, 몸과 마음이 모두 곧 각각 '이와 기의 결합'으로서, 동양철학에서 인체와 정신은 존재론적으로 대립하지 않는다.<sup>18)</sup> 이와 같이 동양에서 인체와 정신은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로서는 얻을 수 없는 일원론적 사고의 틀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양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합리적 영혼과 비합리적 육체의 간격을 메워 줄 수 있는 것은 에로스였다.<sup>19)</sup> 인간의 성성은 중세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작 가능한 것으로서,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신체를 외형과 욕망(아폴론과 디오니소스-합리성과 비합리성) 사이의 갈등이라 생각했으며, 중세의 기독교적 금욕주의 전통에서는 인간의 육체를 욕망을 제공하는 죄악의 원인으로, 영혼의 감옥으로 여겨<sup>19)</sup> 사실적 누드화도 드물며<sup>20)</sup> 인

간의 욕망은 지극히 사적(私的)인 영역에서조차 억제되었다. 근대에는 인체의 형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인해 인체의 사실적 재현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대 상업주의 사회에서는 인체가 쾌락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여겨지면서 인체의 가치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인체의 노출이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게 되었으며<sup>21)</sup> 공적인 영역에서조차 인간의 욕망은 표현되고, 만들어지고, 만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되었다.<sup>22)</sup>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영혼, 마음, 이성, 육체를 인체에 대한 미적 가치의 네 축으로 보고, 네 축 중에서 인간을 어디에 가까운 존재로 보는가를 성성의 강조 여부, 즉 성적 특징의 노출과 은폐를 통해 분석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중세의 인체 표현을 인간의 영혼이 보다 강조된다는 뜻으로 신성(神性), 근대의 인체 표현을 인간의 감성과 이성이 보다 강조된다는 뜻으로 인성(人性), 현대의 인체 표현을 인간의 욕망, 인간의 육체가 보다 더 강조된다는 뜻으로 야성(野性)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신성, 인성, 야성의 개념은 오병남이 예술의 본질 논의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일련의 개념들이다.<sup>23)</sup>

인간이 동물 보다는 신에 더 가까운 존재로 인식되어, 인간의 영혼이 그 존재를 인정받을 때, 인체의 신성은 성성의 부정으로 얻어지며, 인간의 금욕성이 요구된다. 인체의 형태 역시 사실적으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추상적으로 표현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인체는 추상적으로 인지되고, 평면적으로 묘사되어 성의 구분조차 모호해지며, 복

14) 유초하, 앞의 책, p.117.

15) 유초하, 앞의 책, p.123.

16) 유초하, 앞의 책, p.124.

17) 유초하, 앞의 책, pp.126-128.

18) W. Jaeger, *Paideia: The Ideal of Greek Culture* (New York, 1944)를 Turner, 앞의 책, p.12.에서 재인용.

19) Turner, 앞의 책, p.13.

20) Saunders, 앞의 책, p.14.

21) M. Featherstone, "The Body in Consumer Culture", *Theory, Culture & Society*, I, 1982. pp. 21-22.를 Turner, 앞의 책, p.172.에서 재인용.

22) Ibid., p.18.

식에 의해 은폐되는 수가 많다. <그림 1>에서 아담과 이브의 '남성다운', '여성다운' 특징들에 대한 묘사는 다른 그림들에 비하여 절제되고 있는 반면, <그림 2>, <그림 3>에서 인체는 <그림 1>에 비하여 사실적인 인간의 모습에 가깝게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인간이 감정과 이성을 지닌 인간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인성이 인정되면, 인체의 형태는 순수한, 또는 과장이 없는 사실적인 자연스러운 존재로 구현된다. <그림 2>는 인체의 이상적 비례 찾기에 열중하였던 뒤러의 작품으로서 인체에서 인간의 이성, 비례, 규칙을 구현하고자 할 때, 인체는 성성이 자연 그대로 긍정되어 사실적으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인간을 감정과 이성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 존재로 보는가에 따라 성성의 부정과 혼돈까지도 올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이 오래동안 인간의 보다 더 바람직한 특성으로 여겨져 왔다면, 인간의 감성은 18세기 Baumgarten이 미학을 "감성적 인식의 학"(scientia cognitionis sensitiv-

ae)<sup>24)</sup>으로 인식하면서부터 이성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은 인간의 감성이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인체의 품만함의



<그림 1> 인성의 인체, 메를링크, 아담과 이브, 1485년경 (『바인리드-술란』)



<그림 2> 인성의 인체, 뒤러, 아담과 이브, 1507년 (『뒤러/브뤼겔』)



<그림 3> 인성의 인체, 루벤스, 세 미의 여신(부분), 1638-1640년 (『루벤스』)

23) 오병남, 『미학강의』 (서울:서울대학교 미학과, 1996), pp.391-427.

24) 竹内敏雄, 『미학 예술학 사전』, 안영길 등(역) (서울:미진사, 1990), p.56.



〈그림 4〉 야성의 인체, 글로든,  
1890년 (『The Body』)

표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인간이 동물에 보다 가까운 존재로, 인간의 야성이 강조되면, 인간의 육체는 그 존재 의의를 인정받고, 인간이 가진 야성이 강조되어 인체의 형태는 더욱 굴곡있게, 풍만하고, 세속적으로, 성성이 강조된 형태로 묘사된다. 〈그림 4〉의 인체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인체에 부여될 수 있는 미적 가치를 신성(神性)/인성(人性)/야성(野性)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 2. 복식에 대한 미의식

### 1) 복식의 형식

복식의 형식에는 다른 예술품과 마찬가지로 복식이 가지고 있는 형태(실루엣), 색채, 재질, 무늬 등의 형식이 일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인체의 물리적 부위의 은폐와 노출과의 관계에서 복

식의 형식을 볼 때 대개 허리 부위의 강조 여부로 분류되는, 실루엣이 가장 적합한 기준이 되리라 생각되며, A형, H형, X형의 일반적 분류에 O형을 추가하여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또한, 복식을 통한 인체 형태의 재현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DeLong<sup>25)</sup>의 인체-복식우선형(Body-Clothes Priority)의 기준을 채택하기로 한다. 인체-복식우선형은 복식전체의 시각적 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복식이 인체를 그대로 드러낼 때에는 인체가 우선이고 인체가 단지 복식의 옷길에 역할만 할 때에는 복식이 우선이다. 인체우선형에는 바디수트나 니트드레스가 해당되며, 복식우선형에는 인체의 형태가 은폐 또는 과장되어 복식의 형태가 우선적으로 인지되는 복식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복식의 형식은 실루엣과 인체우선형/복식우선형의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복식의 미적 가치

복식은 침묵하는 인체를 깨우는, 인체에 대해 말하는 새로운 방식이다.<sup>26)</sup> 인체에 부여한 가치들은 복식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복식에서 인체의 형태, 혹은 각 부위들이 은폐, 노출되며, 새롭게 표현되기 때문에 복식의 미적 가치는 인체의 미적 가치 뿐만 아니라 인체의 형식과 관련이 있다.

신성을 지닌 인체의 아름다움,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성을 부정하고, 신에 더 가까운 존재로 부각된 인체미를 표현하기 위한 복식의 형식은 자연히 인간의 성적인 특징을 최대한 은폐하고, 복식의 크기를 크게 하여 인간의 신체 크기를 확장하면서 인간에게 위엄성을 부여한다.<sup>27)</sup> 이 때 복식은 숭고미의 미적 가치를 보는 이에게 체험하도록 한다. 버크

25) Marilyn R. DeLong,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금기숙(역) (서울:이즘, 1997), pp.49-50. 인용서에는 Clothes priority가 “의복우선형”이라고 번역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복과 장식(예: 신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을 택하여 “복식우선형”이라고 하기로 한다.

26) Joanne Finkelstein, After a Fashion (Australia: Melbourne University Press, 1996), p.67.

27) J. C. Flü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1930), pp.46-48.

(Burke)는 숭고를 고통, 위험, 공포 같은 관념이 직접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서 존재할 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쾌감으로서, 위력, 길이, 높이, 깊이 등 연장의 위대성과 무한성으로 보았다.<sup>28)</sup> 복식사상으로는 서양 중세 시대의 인체를 은폐하는 실루엣과 거친 재질, 어둡고 탁한 색조의 중성적 이미지를 가지는 금욕적 복식<sup>29)</sup>이 해당된다. 또한 조선 시대 선비들이 입었던 복식들은 기능성이나 화려함 보다는 유교적인 예를 지키기 위한 자기 절제를 상징하는 동시에 착용자에게는 인격미<sup>30)</sup>를 부여하는 것이었기에 이는 금욕적 복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인성의 인체미를 표현하기 위한 복식의 형태는 인간이 지닌 이성과 감성 중에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합리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성적 인 느낌이 절제된, 인간의 신체적인 형태를 강조하지 않는, 순수한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인체와 복식을 보는 이는 미적인 것 일반의 특질이 가장 순수하게 구현되는<sup>31)</sup> 순수미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순수성의 미적 가치를 지니는 복식은 서양복식사상 18세기 말의 신고전주의 복식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 복식의 단순한 형태와 소재의 사용 역시 복식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한편 인간이 지닌 감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인간의 성성을 긍정하고 인체 형태를 강조하도록 복식이 조형된다. 서양복식사상 인간의 감성을 강조한 복식은 낭만주의 영향기, 바로크, 로코코의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계몽사상가들이나 신고전주의자들이 진실을 찾고자 이성과 지성

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낭만주의는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중시한 관념 철학을 바탕으로 하였다.<sup>32)</sup> 신고전주의 스타일에 뒤이은 19세기의 낭만주의 복식의 실루엣은 르네상스의 실루엣과 유사하여 다시 스커트가 벨 모양으로 부풀려졌고 페티코트를 입기 시작하였다.<sup>33)</sup> 그러나 인성의 인체에서 추구되는 복식미는 지나친 과장은 없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인체미를 드러내게 된다. 인성의 인체에서 추구되는 복식과 인체의 관계는 우선적으로 복식이 인체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인체와 복식을 보는 이에게는 자연스러운 미의 체험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순수미와 자연미의 개념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동양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의 구분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성을 강조하는 복식과 감성을 강조하는 복식의 구분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야성의 인체미를 살리기 위한 복식은 인간의 성적 특징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관능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복식을 통하여 인간의 육체를 강조한다. 복식은 인체의 실루엣을 억압하여 강조, 왜곡하며, 이 때 인체 위에 입혀진 복식을 보는 이는 관능미라고 일컬어질 미적 가치를 체험하게 된다. 서양복식사상 본다면, 사실상 기독교의 정신과 문화의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sup>34)</sup> 볼 수 있는 인체의 곡선이 강조되고 인체의 물리적 부위의 노출이 많은 복식이 해당될 것이다. 18세기부터 있었던 조선 복식에서의 체형 노출은<sup>35)</sup> 한국 전통 복식에서 인체의 곡선이나 인체 부위가 노출된 예가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에도 복

28) 竹内敏雄, 앞의 책, p.275-277.

29) 김태연, "중세풍 복식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p.50.

30)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서울:열화당, 1995), p.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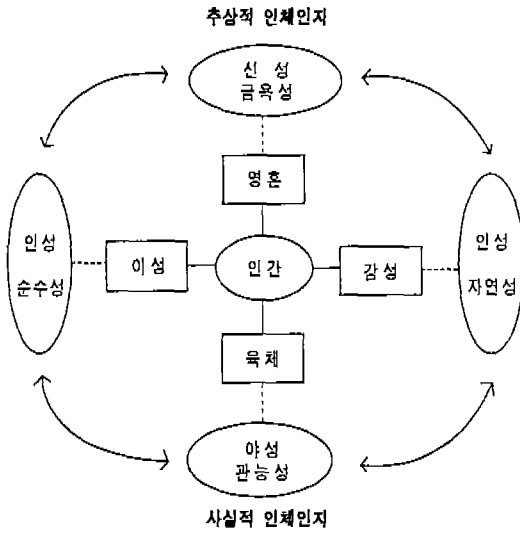
31) 竹内敏雄, 앞의 책, p.271.

32) 서병국, 『대학문화사』 (서울:교문사, 1980), pp.214-215. 문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1995), p. 29. 에서 재인용

33) 정홍숙(1997), 앞의 책, p.300-301.

34) Turner, 앞의 책, p.19.

35) 김영자, "한국 복식미에 표현된 에로티즘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1993년 11월, 21호, p.160.



〈표 2〉 인체와 복식의 미적 가치

식을 통한 인체의 간접적인 노출의 미를 즐겼던 예가 될 것이다.

이를 인간을 중심으로 인체의 미적 가치와 복식의 미적 가치를 배치하면 다음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에서는 인간을, 영혼을 지닌 신성의 존재, 이성과 감성을 지닌 인성의 존재, 그리고 육체를 지닌 아성의 존재로 나누고, 이러한 인체의 미적 가치에 따라 다시 금욕성, 순수성과 자연성, 관능성의 복식의 미적 가치로 확장시킨 것으로서, 인체에 대한 미의식과 복식에 대한 미의식 연구를 위한 기본 개념의 틀이 될 것이다.

### Ⅲ.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인체 위에 복식이 입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미의식을 복식을 통하여 유추하고자 한다.

#### 1. 전통적 한복

##### 1) 인체에 대한 미의식

전통적 한복의 형태는 여성의 인체 형태를 재현

하여, 인체의 굴곡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인체 위에 입혀졌을 때 착용자의 '몸태', '옷맵시'를 통하여 여성 인체의 형태, 여성의 성적 특징이 암시될 뿐이다. 대신 얼굴이나, 노출된 목, 손 부위는 성적 특징을 드러내는 주요한 부위로 인식되고 있다. 움직일 때 치마 밑으로 살짝 나오는 발(〈그림 6〉)과 마찬가지로, 피복 면적이 큰 경우에 노출되는 인체 부위가, 직접적인 성징 부위는 아니더라도, 성적 매력을 전달하는 부위로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목 부위의 노출은 전통적 한복의 형태상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한복에서는 저고리가 짧기 때문에 의복 전체에서 시각적 분할선이 높게 위치하여 시선을 머리와 목 부위 쪽으로 보내고 있으며 저고리의 도련선 아래의 부위는 긴 치마로 덮고 있어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한복에서 인체는 가슴이나, 허리, 배, 엉덩이 등의 동체부 내에서의 구분과 동체부와 다리의 구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서 먼저 인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기능적인 목적에 의한 손의 노출과 동정을 단 것선의 V형 네크 라인 근처에서 목과 머리가 노출,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현대의 전통적 한복에서 인체는 추상형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전통적 한복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체의 미적 가치는 신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성을 강조하여 인체의 형태가 은폐되는 한편 '인체의 형태를 과장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서 신성과 함께 인성을 전통적 한복에 나타난 인체의 미적 가치로 보고자 한다.

#### 2) 복식에 대한 미의식

전통적 한복은 현대 이전에는 일상복으로 입혀졌던 복식이지만, 현대에 서양 복식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인지되어 예복으로 정착하게 되며 더 화려하고 위엄있게 변화된다.

치마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속옷으로 서양식





〈그림 5〉 전통적 한복,  
그레타 리, 1986년 (『멋』)

페티코트를 입는 경우가 많아져서 A형 실루엣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치마의 길이도 길어져서, 하이힐을 신고 전통적 한복을 입기도 하지만, 한국 전통 복식의 저고리, 치마의 조합과 그 기본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가슴과 허리 부위가



〈그림 6〉 전통적 한복,  
김재학, 1994년 (『한국의 미』)

노출되거나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양복의 X형 실루엣의 이브닝 드레스와 흡사한 형식과 용도를 갖게 된 것이다. 다만, 한국 전통 복식의 짧은 저고리와 옷고름, 등근 소매 배래가 독특한 형식으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 웨이스트의 시각적 분할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복식의 형식은 우선 A형 실루엣이 주종을 이루지만 소재와 유행에 따라서는 H형 실루엣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복식의 소재는 예복화의 경향과 합성 섬유와 화학적 염색의 보급 등의 영향으로 조선 시대의 전통 복식보다 화려한 색채와 재질의 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6〉과 같이 속칭 '사철깨끼', '사철 노방'이라는 이름으로 겨울에도 얇고 비치며 힘이 있는 화려한 색상의 노방을 사용하여 풍성한 A형 실루엣을 보여주게 되었다. 색채는 상하 대비되는 색(〈그림 5〉)이거나, 같은 색(〈그림 6〉)으로 다양하게 쓰여지며, 그림이나 자수를 하는 등의 장식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무늬는 전체적인 단순 반복 문양(〈그림 5〉)이나, 치마를 한 쪽의 화면으로 보고 그리거나, 자수하는 단독 문양(〈그림 6〉)의 경우가 있다. DeLong의 분류에 따르면 전통적 한복은 인체의 구조적 특징이 은폐되어 복식이 먼저 인지되는 복식우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한복은 인체의 물리적 부위의 노출을 최대한 피하고 있어서 현대 한국적 복식 가운데에서 볼 때에는 상대적으로 인체의 신성한 미적 가치와 복식의 금욕적 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현대성의 영향으로 전통적 한복이 예복화되고 일상복으로는 인체의 형태가 드러나는 서양적 복식을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현대 한국적 복식 중에서 상대적으로 관능성의 표현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소재나 유행에 따라 H형 실루엣을 이루는 시기도 있어서 인체의 과장되지 않은 인성의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 복식은 순수한 미와 자연의 미를 지니는



〈그림 7〉 현대적 한복, 강태경, 1985년, (『멋』)



〈그림 8〉 전통적 한복, 신난숙, 1990년 (『현대한복구심』)



〈그림 9〉 현대적 한복, 1997년 (『돌실나이』 카탈로그)

것으로 표현된다.

## 2. 현대적 한복

### 1) 인체에 대한 미의식

현대적 한복에서 두드러지는 팔, 다리의 노출은 복식에서 활동성이 추구되었고, 또한 현대성의 영향으로 여성의 팔, 다리의 노출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 한복과는 달리 소매를 팔에 꼭 맞게 구성함으로써 팔의 형태가 드러나고, (〈그림 9〉) 바지(〈그림 8〉)나 짧은 치마(〈그림 7〉, 〈그림 9〉)로 다리가 암시, 노출되고 있으며, 허리 부위에서 상하의를 분할함으로써, 허리 부위가 드러난다.(〈그림 8〉, 〈그림 9〉) 이는 현대적 한복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변화이다. 복식에서 허리 부위를 노출시키거나 허리선을 드러내는 것은 현대적 한복과 전통적 한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복식의 현대적 형식을 이루는 중요한 특징이 된다. 또, 깃을 단 듯한 V형의 목선도 전통적 복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7〉은 치마 길이가 짧아지면서 저고리가 허리선까지 길어져서 전통적 한복과는 다른 길이의 비례를 보여주고 있다. 긴 저고리가 조선 시대 초기까지만 하여도 전통 복식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긴 하나, 허리선까지 오는 긴 저고리와 짧은 치마의 조합은 서양 현대 복식에서 볼 수 있는 비례감이기도 하여 현대성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체 형식의 분류 기준을 볼 때 사실형과 추상형이 혼재되어 있다. 인체의 물리적 부위 중에서 팔과 다리, 허리 부위 등은 사실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복식이 풍성하여 인체의 윤곽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상형도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복식에서의 기능성 추구로 자연스러운 인체의 미적 가치를 추구하고 인체의 인성이 강조되고, 인체의 신성이나 야성은 강조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 2) 복식에 대한 미의식

현대적 한복은 전통적 한복의 의례적 표현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통적 한복을 서양식으로 화려

하게 변화시키거나, 현대에서 일상복으로도 입혀질 수 있도록 전통적 한복을 편리하게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일상복으로 입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전통적 한복보다 관리가 편리한 소재를 사용하고, 전통적 한복보다 활동에 편리한 형태의 복식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대적 한복은 전통적 한복과 현대 복식의 혼합형으로서 복식의 형식면에서 다양한 변화형이 나타난다. 상의가 길어지고, 하의가 짧아지고, 바지(〈그림 8〉), 원피스(〈그림 9〉)가 등장한다. 〈그림 8〉의 바지 사용은 원래 한국 전통 복식에서 여자들이 바지를 내의로 착용하였던 것에서, 서양의 영향으로 바지를 외의로 착용되게 되고, 그것이 현대적 한복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지가 의의화되면서 바지 부분을 조각보와 같이 처리하여 장식성을 높였다. 〈그림 9〉의 V형의 목선은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복식의 형식상 원피스로 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복제와는 거리가 있다. 이는 기존의 다른 현대적 한복보다 서양복의 형식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며, 현대적 한복의 개념이나 방향에서 아직도 변화의 여지가 많음을 말해준다. 대부분의 현대적 한복에서 V형의 목선과 둥근 배래가 유지되어 이 요소들이 복식 형식상의 전통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전통적 한복이 일상복화하면서 긴 고름이 짧아지거나, 없어졌으며, 상의와 하의의 길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복식의 실루엣은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규모가 전통적 한복만큼 크지 않다. 실루엣은 〈그림 7〉의 A형 실루엣, 〈그림 9〉의 H형 실루엣, 〈그림 8〉의 허리 부위의 강조로 인하여 상하의 부피감의 차이를 보이는 X형 실루엣이 있다.

〈그림 7〉, 〈그림 8〉은 한국 전통 복식의 형식에 보다 가까운 복식우선형으로 인지되나, 〈그림 9〉는 서양 복식에 보다 유사한 인체우선형으로 인지되기 쉽기 때문에 DeLong에 의한 분류 기준으로 보자면, 두 범주가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적 한복의 색채는 원색적일 수도 있고, 무채색의 통일 수도 있는데, 대개 일상적인 기능이 강조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저채도의 색채가 많이 쓰인다. 직물은 한국 전통 복식의 우아한 멋을 표현하기 위하여 전통 소재인 모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면과 같이 실용적인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복식의 자연스럽고, 우아한 멋을 표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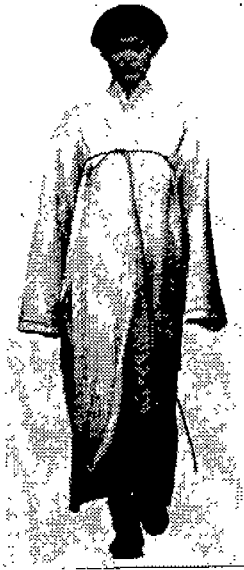
현대적 한복은 한국 전통 복식을 기본으로 현대적인 서양 복식의 요소를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였는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적 한복은 기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인체의 형태는 과장되지 않게 표현되어 복식에서 인체의 인성이 추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 3. 한국적 현대 패션

#### 1) 인체에 대한 미의식

한국적 현대 패션은 대부분 서양 복식 디자이너들이 서양 복식에 한국적 모티프나 한국적 느낌을 가미하여 디자인한 것으로서 서양 복식에 출발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통적 한복이나 현대적 한복에 비하여 인체의 표현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다. 인체의 형태를 노출하기도, 은폐하기도 하며, 노출되는 인체 부위도 다양하다. 즉, 인체는 신성하게 해석되어 은폐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야성적으로 보여져서 인체 형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나, 과장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인체의 형태가 드러난다. 따라서 인체의 신성, 인성, 야성이 경우에 따라, 만드는 이에 따라 모두 표현된다.

〈그림 11〉, 〈그림 12〉에서 한국 전통 복식에서는 은폐되었던 부위인 팔과 다리가 노출되고 있는데



〈그림 10〉 한국적 현대 패션, 진태욱, 1993년 (『엘르』)



〈그림 11〉 한국적 현대 패션, 이신우, 1988년 (『멋』)



〈그림 12〉 한국적 현대 패션, 설유행, 1995년 (『엘르』)

팔은 서양 여성 복식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출되어 왔던 부위이지만 다리의 노출은 서양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현대적인 서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은 복식이 인체의 형태를 은폐시키고 있는데, 인체는 하나의 전체로서 평면적으로 인지된다. 인체에 대한 추상적 인지로 인하여, 인간의 성성은 무시되고 있다. 〈그림 12〉는 상체와 팔, 다리, 허리가 드러나는 서양적인 인체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허리를 중심으로 풍성한 치마를 몸에 맞는 상의와 연결시킴으로써 서양의 X형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복식에 의한 인체 부위의 확장이나 축소는 서양 복식 구성상의 전형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복식에 대한 미의식

한국적 현대 패션의 형태, 색채, 재질, 무늬는 매우 다양하며, 금욕성, 순수성, 자연성, 관능성의 복식에 대한 미적 가치도 모두 발견된다.

〈그림 10〉은 한국의 도포를 연상시키며, O형의

실루엣을 보여준다. 삼베와 유사한 색채와, 거친 질감의 직물을 쓰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연성 소재의 투박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의복 전체의 길이나 소매의 길이가 길어서 착용자의 성(性)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인체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으며, 목 부분조차도 높게 가려져 있어서 복식우선형을 보여주며, 복식의 금욕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하이 웨이스트의 위치에 있는 가는 끈은 평면적이고, 인체를 은폐하는 의복보다도 더 큰 시각적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한복의 저고리의 밑단 선에 위치하여 한국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 11〉은 H형 실루엣으로 전통 치마 저고리의 가로 방향의 분할선을 살리고 있는데, 흑백으로 처리한 점이 개화기의 개량 한복을 연상시킨다.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복식우선형의 복식이며, 복식의 형태 자체가 절제되어 있고, 무채색을 쓰고 있는 점 등이 복식의 순수성의 미를 느끼게 한다. 〈그림 12〉는 한국적인 모티프의 직물과 서양적인 실루엣과의 결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전통적 떡살무늬의 모티프가 프린트되어 한국적인

느낌을 주고 있지만, 상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슬리브리스의 상의와 짧은 개더 스커트로 인한 X형 실루엣은 서양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복식을 통한 허리 부위의 노출로 여성의 성성이 강조되어 관능적미를 느끼게 한다.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어, 인체 우선형을 보여준다.

4.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에 대한 비교 고찰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은 전통적 한복, 현대적 한복, 한국적 현대 패션을 비교함으로써 더욱 명확해지리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교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표 3> 참조)

첫째, 인체의 물리적 부위에 대한 인지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전통적 한복에서는 한국 전통 복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머리, 목, 손 만이 노출 부위였었지만, 현대적 한복에서는 허리, 팔과 다리, 발의 노출이 특징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실용적 기능을 위하여 팔, 다리가 노출되었고, 상의가 길어지면서 허리 부위 형태의 노출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허리 부위 형태의 노출은 서양의 관점에서 여성의 성적 부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성이 강조되는 서양 복식의 영향도 있었으리

라고 본다. 그리고, 한국적 현대 패션에서는 인체 부위의 노출의 정도가 심하여지고 노출의 양도 더 많아지고 있어서 팔, 다리, 허리 등의 인체 부위의 노출이 복식의 현대성과 전통성을 구분하는 요인의 하나임을 가정할 수 있으며, 인체의 형식은 한국적 현대 패션으로 올수록 추상정보보다는 사실형이 더 많이 보인다.

둘째, 전통적 한복, 현대적 한복, 한국적 현대 패션은 전통적 한복 이외에는 한 범주 내에 다양한 복식 형식이 혼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식 형식, 즉, 색채, 재질, 무늬 등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다. 실루엣으로 보자면 현대적 한복과 한국적 현대 패션<sup>2</sup>에서 전통적 한복과는 달리 X형, 또는 O형 실루엣의 복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 즉, 한국 전통 복식의 V형의 깃의 형태, 둥근 배래, 저고리의 둥근 밑단, 주름 잡힌 치마 등이 전통적 한복, 현대적 한복, 한국적 현대 패션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실루엣에서 A형을 보이는 모든 복식을 전통적 한복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인 깃의 형태를 고수함으로써 얻어지는 V형의 목둘레선은 현대적 한복과 한국적 현대 패션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쓰일 수 있었다. 한국 전통 복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대적 한복에서는 거의 V형의 목

<표 3>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의 형식과 미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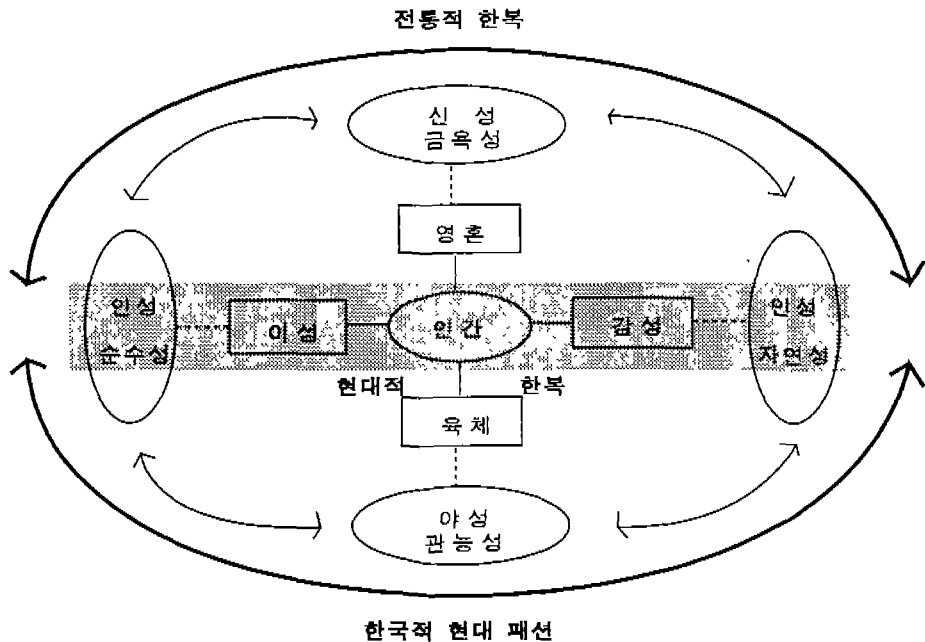
		범주	전통적 한복	현대적 한복	한국적 현대 패션
인체	형식	노출된 인체의 물리적 부위	머리/ 목/ 손	머리/ 목/ 허리/ 팔/ 다리/ 손/ 발	머리/목/ 허리/ 팔/ 다리/ 가슴/ 배/ 엉덩이/ 손/ 발
		인체의 인지	추상형	추상형/ 사실형	추상형/ 사실형
	미적 가치	신성/ 인성	인성	신성/ 인성/ 야성	
복식	형식	실루엣	A형/ H형	A형/ H형/ X형	A형/ H형/ O형/ X형
		복식의 인지	복식우선형	복식우선형/ 인체우선형	복식우선형/ 인체우선형
	미적 가치	금욕성/ 순수성/ 자연성	순수성/ 자연성	금욕성/ 순수성/ 자연성/ 관능성	

틀레션을 택하고 있지만, 서양 복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적 현대 패션에서는 네크라인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V형이 아닌 경우도 많이 보였다.

셋째, 전통적 한복, 현대적 한복, 한국적 현대 패션의 구분은 인체와 복식의 미적 가치로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전통적 한복은 일상복 보다는 예복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조되어 위엄있는 아름다움이 요구된다. 한국의 예식용 복식은 서양과는 달리 인체의 성성이 드러나지 않는 복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체의 신성과 복식의 금욕성이 강조된다. 전통적 한복은 전통성을 중시하는 중에도 현대적 환경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지나친 과장이 아닌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미도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금욕성과 함께 인체의 인성과 복식의 순수성, 자연성을 포함하는 큰 범위 안에서 미를 이루고 있다. 현대적 한복은 원래 일상복으로 입혀지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상성이 강조되어 인

체의 인성과 자연성, 순수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적 현대 패션은 현대 대중 문화의 영향으로 성성이 강조되어 인체의 야성과 복식의 관능성이 복식미를 이루는 미적 가치로 중요해지고, 자연성, 순수성도 중요해진다. 그러나, 현대 복식 현상이 복잡하고 총체적이기 때문에 한국적 현대 패션에서도 인체의 신성과 복식의 금욕성의 미적 가치를 가지는 복식이 보인다.

〈표 4〉는 전통적 한복, 현대적 한복, 한국적 현대 패션의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적 가치를 나타낸 것으로서 전통적 한복은 인체의 신성과 복식의 금욕성을 중심으로, 인체의 인성, 복식의 순수성, 자연성까지의 미적 가치를 가진 복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적 한복은 일상복으로서 복식이나 인체의 과장된 표현을 억제하기 때문에 인체의 인성과 복식의 자연성, 순수성의 미적 가치를 지니는 복식으로 볼 수 있겠다. 한국적 현대 패션은 인체의 야성과 복식의 관능성을 중심으로, 인체의 인성, 복식의 순수성,



〈표 4〉 현대 한국적 복식의 미적 가치

자연성의 미적 가치를 가진 복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은 예복과, 편한 일상복, 패셔너블한 정장류로 확대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IV. 결 론

인체의 추상형/사실형 개념에 따라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을 고찰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 될 수 있다.

첫째, 인체에 대한 미의식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인체에 대한 전통적인 미의식은 인체를 추상적으로 보는 것이었고, 따라서 복식에서 인체의 물리적 부위의 노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시기에 들어 인체의 각 부위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복식 구성상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서양적 현대성의 영향에 의한 전통적 미의식의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분리, 인정하는 서양의 사실적 인체관은 전통적 추상적 인체관을 변화시켰을 것이며, 따라서, 현대 한국적 복식에서 한국 전통 복식에 비하여 인체 형태의 노출이나 암시가 많아진 것은 이러한 배경 하에 사실적 인체를 관능성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에서 연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위와 같은 구분을 복식에 그대로 적용하여 볼 때, 인체에 대한 미의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복식에 대한 미의식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시대적 환경으로서의 서양의 현대성의 영향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인체의 추상적 인지

에 따른 평면적인 한국 전통 복식의 형태는 인체의 사실적 인지에서 비롯되는 입체적 서양 복식의 영향을 받아 현대화과정에서 입체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성 복식에서 가슴이나, 허리 등의 상체는 물론이고, 다리와 엉덩이의 하체의 형태가 노출, 암시된 것은 서양에서조차 현대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복식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는 현대 생활의 기능적 요구에도 맞는 복식 형태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복식에 대한 미의식을 인체에 대한 미의식과 관련하여 고려할 때, 모든 복식에 대한 미의식 변화의 원인이 인체에 대한 미의식의 변화에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인체에 대한 미의식의 변화가 복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배경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셋째, 현대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나아갈 바와 관련하여 볼 때, 한국 현대 복식 가운데 특히 현대 한국적 복식은 전통성과 현대성의 혼합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현대 한국적 복식, 즉 전통적 한복, 현대적 한복, 현대 한국적 패션 가운데 현대적 한복과 현대 한국적 패션은 복식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의 브리콜라지(bricolage)<sup>36)</sup>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복식은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복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과거에는 전혀 혼용할 수 없었던 여러 요소들, 즉, 한국 전통복식에서의 반소매 상의, 짧은 치마와 서양 복식에서의 깃 모양의 넥라인, 전통 자수 등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닌 현대 한국적 복식 디자인의 개발은 이와 같은 복식 형태상의 혼용, 변화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의 변화와 함께 인체에 대한 미

36) 사전적으로는 '뜯어 맞추기'('에센스 불완사진', (서울:민중서림, 1988), p.287)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 1966)가 사용한 개념으로서 최초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화적 기호를 시험하고, 사용하고 조합함으로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말한다. 이를 포스트 모던 복식의 특징 중의 하나로 본 연구로는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복식 문화』, 서울:교문사, 1996, p.245-246.이 있고 포스트 모던 복식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현대 패션과 이 개념을 연결시킨 연구로는 Craik, Jennifer, The Face of Fashion, London: Routledge, 1994, p.x.이 있다.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전통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전통미를 정의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에서 더 나아가 거시적이고 포용력있게 현대적 시대미를 수용하는 열린 태도를 가질 때에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서울:열화당, 1995.
- 서병국, 『대학문화사』. 서울:교문사, 1980.
- 오병남, 『미학강의』. 서울:서울대학교 미학과, 1996.
-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복식 문화』. 서울:교문사, 1996.
- 장문호, 『복식미학』.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75.
- 정응숙, 『근대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1995.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1997.
- 조요한, 『예술철학』. 서울:경문사, 1995.
- van Peursen, C.A. 『몸, 영혼, 정신』. 손봉호, 강영안(역), 서울:서광사, 1985.
- DeLong, Marilyn. R.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금기숙(역), 서울:이즘, 1997.
- 竹内敏雄, 『미학 예술학 사전』 안영길 등(역), 서울:미진사, 1990.
- Atkins, Robert. Art Spoke. N.Y.: Abbeville Press, 1993.
- Craik, Jennifer. The Face of Fashion. London: Routledge, 1994.
- Finkelstein, Joanne. After a Fashion. Australia: Melbourne University Press, 1996.
- Flügel, J. C.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1930.
- Garland, Madge. The Changing Form of Fash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Inc., 1970.
- Jaeger, W. Paideia: The Ideal of Greek Culture.

New York, 1944.

- Saunders, Gill. The Nude. Cambridge: Harper & Row, Publishers, 1989.
- Turner, Bryan S. The Body and Society. Oxford: Basil Blackwell, 1984.
- 김영자, "한국 복식미에 표현된 에로티즘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1993년 1월, 21호.
- 김태연, "중세풍 복식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유초하, "동서의 철학적 전통에서 본 육체-주희와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문화과학, 1993년 9월, 4호, 서울:문화과학사.
- Featherstone, M. "The Body in Consumer Culture." Theory, Culture & Society, I, 1982.
- 『에센스 불한사전』. 서울:민중서림, 1988.

### <그림출전>

- 신난숙, 『현대한복구성』. 서울:이데아서적, 1990.
- 유준상 외 (편역), 『비인미술관』. 세계의 대미술관, 제 9 권. 서울:탐구당, 정현출판사, 1977.
- 임영방(편), 『뒤러/브뤼겔』. 서양미술전집, 제 3 권. 서울:한국일보사, 1973.
- 임영방(편), 『루벤스』. 서양미술전집, 제 4 권. 서울:한국일보사, 1973.
- Ewing, William A. The Body.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94.
- 월간 『멋』
- 월간 『엘르』
- 월간 『한국의 미』
- 『돌실나이』 카탈로그

### ABSTRACT

A Study o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Body and Dres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Abstract/ the Realistic of Body



This study aims to show how tradition and modernity has interacted to produce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body and dress in contemporary Korea. For this purpose, documentary studies were proceeded. And photos of the modern Korean dress from 1980 to 1997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ody form was studied in terms of exposure and concealment of the physical body parts and the perception of body wa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he abstract and the realistic. And the dress form was studied in silhouette and the perception of dress was assorted as body priority and clothes priority.

Second, the aesthetic values of body were categorized to divinity, humanity and sexuality. And the aesthetic values of dress were defined in relation to the aesthetic values of body as ascetic beauty, pure beauty, natural beauty and erotic

beauty.

Third, while the traditional Korean costume (Hanbok) pursues the aesthetic values of divinity and humanity of human body and ascetic beauty, pure beauty and natural beauty of dress, the contemporary Hanbok is based on the aesthetic values of humanity of human body and the pure beauty and natural beauty of dress. The contemporary Korean fashion expresses the aesthetic values of divinity, humanity and sexuality of human body and the aesthetic values of ascetic beauty, pure beauty, natural beauty and erotic beauty of dress.

In conclusion, the emphasis of sexuality of body and erotic beauty of dress in the modern Korean dress can be interpreted as the change of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body and dress in contemporary Korea by the influence of the western modernity.